



# 신과 소통하는 사람들

## : 채널링의 감응 기술, 주체화 실천, 상품화 과정에 관한 연구

이준용

서울대 인류학 박사과정

E-mail : junyongzen@snu.ac.kr

### 영적 메시지를 전하는 '채널링 상담소 C'

#### • 채널링과 채널러 그리고 주체화 실천

이 연구는 '채널링(channeling)'을 신비주의적 계시나 종교적 실천으로 환원하지 않고, 비인간 행위자와의 감응·관계 및 거리의 윤리적 조율·시장화의 위기가 얽힌 복합적 주체화 실천으로 조명한다.

'채널러(channeler)'는 고정된 정보를 수신 및 전달하는 수동적 중개자가 아니라, 내담자와 함께 의미·신뢰·실재의 감각을 공동구성하는 적극적 해석자이자 윤리적 상담자이다. 채널링 메시지는 감각·심상·기호·동의·신뢰·시간 등을 동원하고 연합한 결과로 구성된다. 메시지는 외부의 객관적 사실(fact)이나 내부의 주관적 물신(fetish)과는 구별되는 관계적 실재 '팩티쉬(factish)'로서 작동하며, 결과적으로 타자들이 감응 및 동맹 가능한 심리적 공통장을 구현한다.

무속이 퍼포먼스 중심의 공동체적 치유와 제도화된 무업의 연속선상에 위치한다면, 채널링은 개인의 서사 구성과 감응 기술을 중심으로 한 심리적 자기변형에 초점을 둔다. 제도화되지 않은 채널러들의 실천과 여과 없는 진술은 영성의 회색지대에서 윤리와 사회적 기술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 중요한 민족지적 자료를 제공한다.

#### • 연구 세부 사항

기간 : 2024.9.2 - 2025.2.28. (6개월)

방법 : 상담소 C에서의 참여관찰, 11명의 채널러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개념 틀 : 주체성, 자기돌봄, 행위자-네트워크 이론

### 연구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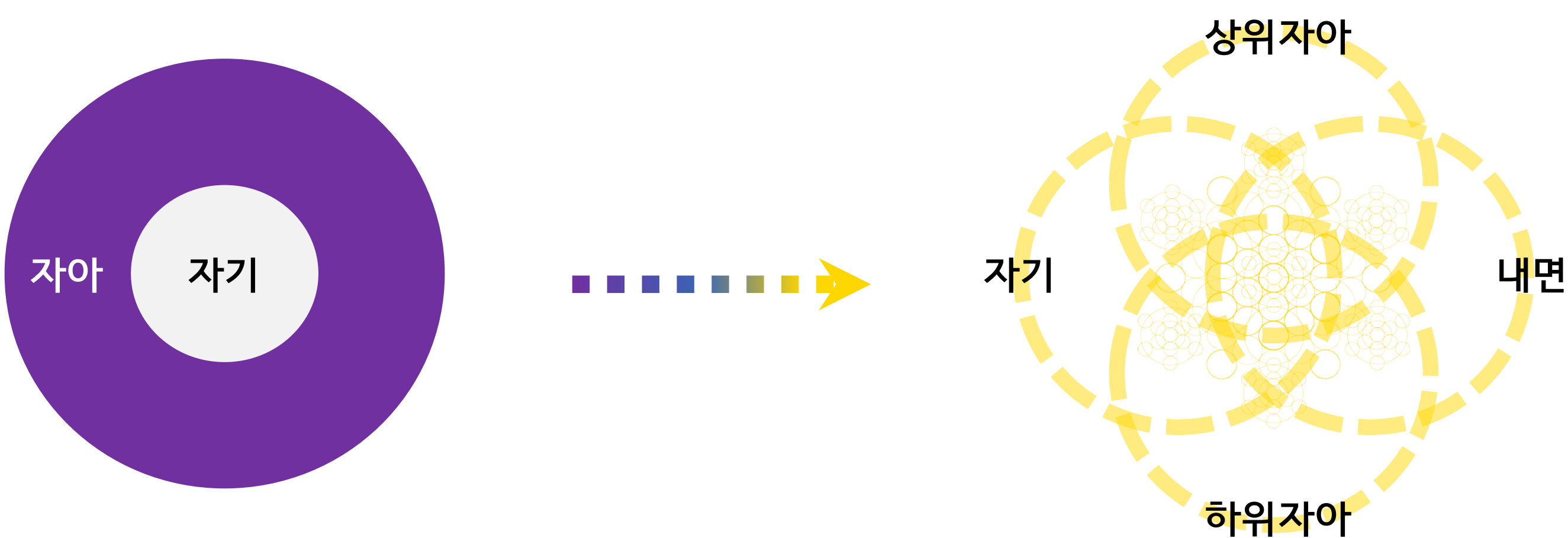
1. 채널링은 보이지 않는 존재와의 연결을 통해 채널러와 내담자의 삶을 어떻게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가?
2. 채널링 메시지는 어떻게 감정과 판단을 변화시키는 힘을 얻게 되는가?
3. 채널링이 상담 서비스로 상품화 및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감응 실천은 어떻게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며, 그 과정에서 채널러는 어떠한 통치성의 규율과 갈등에 직면하는가?

### 채널링의 감응 기술과 존재론

#### • 감응 가능한 타자의 구성

채널링 실천에서 상위자아는 감응·조율을 통해 주체와 상호구성되는 타자이자 비인간 행위자다. 채널러는 상위자아와의 연결을 통해 내담자의 자아를 비워내고, 윤리적 판단과 실천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공통장을 형성한다.

채널링의 주체는 감응 가능한 타자들을 통과함으로써 자신을 재구성하는 존재이며, 타자들은 너무 다르지도 동일하지도 않은 윤리적 긴장을 유지하며 상호구성하는 존재다. 감응을 위한 조건은 채널러 A에 따르면 마음을 "null값 상태"로 둔 채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며, 이는 자아의 통합성을 의식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고정된 자아를 감응 가능한 형식으로 해체 및 분할하는 것이다.



#### • 타자와의 동맹과 자기 재배치

가정주부였던 채널러 E는 가족 내 수동적 역할에서 벗어나고자 채널링을 배웠고, 반복적 감응 훈련을 통해 치료사 역할에 맞게 자신을 재구성했다. 이 과정은 기존 젠더적 규범을 저항·전복하기보다, 자기돌봄의 윤리적 실천을 통해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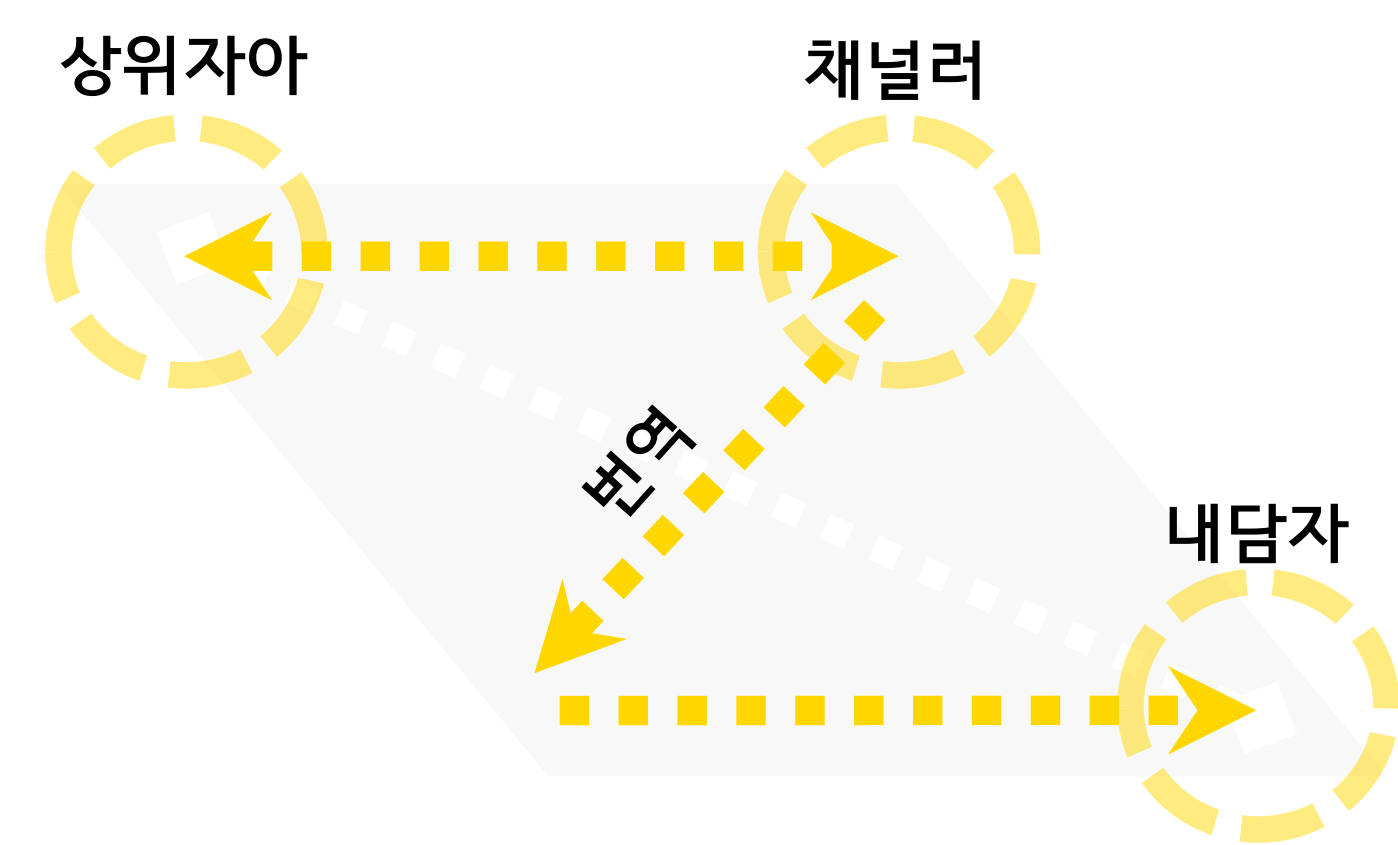
타자와의 동맹 이후 "리밸런싱"은 존재들의 거리 조절 및 재배치 기술로 작동한다. 채널러는 타자를 완전히 지배·저항하는 대신, 관계가 지속 가능하도록 경계를 재구성하는 '경계노동(boundary work)'을 실천한다. 카두케우스(좌측 상단)는 이 윤리적 실천을 시각화하며, 마녀-치료사의 오랜 역사성과 오늘날 부활한 자유의 실천을 연결하는 상징으로서 기능한다.

### 소통과 메시지를 구성하는 장치들

#### • 소통을 위해 동원되는 것들 : 타자, 심상, 기호

채널링에서는 목주·크리스탈·책 등의 사물 또한 단순한 수단이나 매개가 아니라 자율적 의지를 가진 비인간 행위자로 간주된다. 이 타자들은 때때로 "저 사람에게 가고 싶다"는 자기 증여의 의지를 전달하기도 한다. 이는 '하우(hau)' 개념을 넘어, 사물이 주체로 재배치된 감응 기반의 증여론을 제안한다.

타자의 발화는 주로 의미가 미분화된 감각들로 전달되곤 하며, 형식·감각·기호를 동원하는 과정을 통해 메시지로 번역된다. 감각과 기호는 수신자의 연상 체계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형되는데, 때로는 정신분열증적 언어처럼 표준적 언어 규범을 벗어난 은유적 연쇄로 전달되기도 한다. 이는 단순한 내적 혼란이 아니라 깊은 감응을 위한 유연한 기호 동원의 조건일 수 있다. 메시지의 신뢰와 실재성의 감각은 상식적 규범과 판단이 닿을 수 없는 층위에서 구성된다.



#### • 메시지의 작동과 윤리 : 번역, 조율, 공동제작

채널링 메시지는 기호로 재구성된 상태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다시 수신자의 수용 가능성과 관계 맥락을 고려하며 세심하게 조율 및 공동 제작된다. 제작의 목표는 진실 말하기가 아니라 내담자가 감당 가능한 변화의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채널러는 내담자의 자유·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는 미래에 관한 예언이나 "언령"의 효과를 경계한다. 메시지는 시간의 동원 및 지연을 통해 신뢰 감각을 확보하기도 하며, 메시지의 즉각적 발화는 그 효과와 작동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채널링 메시지는 과학적 검증 및 재현 불가능한 관계적 실재 '팩티쉬'이며, 내담자 주체가 그 메시지를 재서사화하여 자신이 구성해 온 현실의 일부로 수용할 때 비로소 하나의 실재로서 작동한다.

### 상품화된 채널링 기술의 위기

#### • 영성 윤리와 합리성의 충돌

채널링 실천이 상담 서비스로 상품화되면서, 영성 윤리와 경제적 합리성 사이에는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내담자의 '이슈'를 자신의 심신으로 삼키고 연결·단절하는 채널러의 경계노동은 신체적 소진과 정서적 부담을 수반한다. 이러한 위험 감수의 비용으로서 서비스의 보수는 정당화될 수는 있으나, 정량화되기는 어렵다.

메시지와 관계의 예측 불가능성은 때때로 악성 고객의 문제 또는 법적 갈등까지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채널링의 제도화 자체를 위태롭게 만든다. 더 큰 문제는 채널러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합리성을 호출하는 순간, 영성 윤리로 구성해 온 그들의 주체성과 자율성이 급격히 통치성의 틀 안으로 환원된다는 점이다.

이를 방지하고자 채널러들은 "소설로 보셔도 돼요"라며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 두며, 검증된 소수 고객과의 도제 관계에 집중하지만, 스승과 제자의 관계 또한 수업료를 매개로 한 단절의 위기에 놓이고 선물성과 상품성 사이의 긴장이 반복된다.

### 결론

#### • 감응을 통해 분기되는 세 가지 주체 형식

채널러 E는 감응 훈련과 자기돌봄을 통해 기존 가족 내 수동적 역할에서 벗어나고, 네트워크적 자기를 돌보는 치료사 역할로 자기를 재구성한다. 채널러 N은 타자에 의한 메시지 제작을 요구하지 않고, 팩티쉬 바깥에 남은 탈서사적 주체로서 '되지 않기'의 급진적 윤리를 실천한다. 채널러 A는 상위자아인 '시스템'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의 영적 성장을 돕고자 채널링 서비스·교육에 임하고, 이는 자기돌봄이 시스템의 통치성에 재포획될 위험과 끊임없이 경합하며 나아가는 주체화 실천이다.

정리하면, 채널링은 자기수양과 관련된 윤리적 실천이자, 타자들과의 리밸런싱을 경유하여 존재를 재배치하는 정치적 전략이며, 감응을 둘러싼 실패와 왜곡·단절의 위기·통치성의 포섭 속에서도 다른 주체성을 실험하고 구성해 나가는 과정이다.